

## 〈특별 기고〉

# ■ 차베스 정책을 평가하다-스티브 엘너 교수 인터뷰

김 순 배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처럼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극단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국가 최고지도자도 드물다. 5·18 기념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스티브 엘너(Steve Ellner) 베네수엘라 오리엔테대학교 교수를 지난 5월29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만나 차베스를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인터뷰했다.

차베스 평가와 관련하여 엘너 교수는 어떤 기준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권력의 견제와 균형 및 민주주의 제도화에는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대미 의존 축소 등은 긍정적이라면서, 차베스를 평가할 때는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야권 등 현실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너 교수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지만, 차베스 정부의 개혁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엘너 교수는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SNUILAS)가 지난 5월31일 마련한 <2010년도 제3회 초청강연>에서, 각각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최근 동향’, ‘우고 차베스 집권 10년: 돌파구와 한계점’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강연했다.

이 인터뷰는 애초 <한겨레>에 게재하기 위해 논박하지 않고 엘너 교수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한겨레> 6월4일자 14면에 원고지 6매 분량으로 압축하여 게재한 바 있다.<sup>16)</sup>

16) 엘너 교수는 위 인터뷰와 관련, *Latin American Perspectives* (January 2010 Vol. 37, No.1)에 "Hugo Chávez's First Decade in Office: Breakthroughs and Shortcomings"란 제목으로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http://venezuelanalysis.com/analysis/5301>)



서울대에서 강연하는 스티브 엘너 교수

엘너 교수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미국인으로 미국 뉴멕시코대학교에서 라틴아메리카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베네수엘라 오리엔테대학교에서 경제사를 가르치고 있다. *Latin American Perspectives*의 외부 편집인이며, 저서로는 *Rethinking Venezuelan Politics: Class, Conflict and the Chávez Phenomenon* (2008); *Neoliberalismo y Anti-Neoliberalismo en América Latina* (2006); *Venezuela: Hugo Chávez and the Decline of an "Exceptional" Democracy*, coedited with Miguel Tinker Salas(2007); *Venezuelan Politics in the Chávez Era: Class, Polarization, and Conflict*, coedited with Daniel Hellinger (2003) 등이 있다.

## - 집권 12년째에 접어든 차베스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데?

엘너: 차베스가 권력에 오른 과정과 지난 11년간 각종 선거에서 승리한 사실을 이해하려면 과거를 봐야 한다. 지난 1980~1990년의 20년 동안, 특히 90년대에 베네수엘라 기업은 무더기로 다국적 기업에 팔려나갔다. 국가가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하던 전략 산업이 민영화됐다. 철강과 항공, 통신, 석유 산업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의 자본주의가 취약한 탓에, 베네수엘라 기업가들이 소유한 시멘트 기업 등도 외국의 다국적 기업에 팔리기도 했다. 사회보장 시스템도 민영화됐다.

차베스는 1999년 집권한 뒤 이런 분야의 민영화를 중단시켰다. 가장 먼저 석유기업의 민영화를 중단시켜, 2001년에 정부가 관련 기업의 지분을 최소 51% 보유하도록 조치했고 최근에는 60%로 늘렸다. 2007년에는 통신사, 2008년 시멘트 등의 전략산업을 국유화했다. 철강 등 전략분야의 국유화는 새로운 게 아니다. 1930~1940년대,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당이 전략산업의 국유화를 원했고, 이는 1961년 헌법에 반영돼 있다. 다시 말해서, 국유화는 차베스가 좌파여서 취한 정책이 아니라, 이미 베네수엘라 정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1980~1990년대에 전략산업의 국유화 방침은 뒷걸음질을 쳤고 민영화가 이뤄졌다.

차베스를 평가하려면 차베스와 야당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1990년대는 베네수엘라와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휩쓴 시기다. 당시 실질적으로 모든 정당이 신자유주의에 동의했다. 1970년대에 공산당에서 분리된 사회주의운동당(MAS)과 같은 좌파 정당도 민영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데 동의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베네수엘라 국

민들은 정치인과 정당에 대단히 실망했고, 정치적 아웃사이더이자 정치인과 정당을 배격한 차베스를 1998년 12월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당시 차베스는 기존 정당이 국익에는 관심이 없다며 정당을 공격했다. 이런 정당들이 차베스를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집권 첫 해는 차베스가 온건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나 2001년 말에 차베스가 사회경제 개혁, 예를 들면 토지개혁을 통과시켰다. 이에 야권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2002년 4월 쿠데타로 이어졌다. 교회도 쿠데타 세력과 한편이었고, 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쿠데타는 가능하지 않았다. 정당과 구(舊) 노조 지도자, 특히 기업가도 쿠데타 세력에 동조했다. 차베스가 쿠데타로 쫓겨난 이틀간 전국상공인연합회 의장인 페드로 카르모나가 임시 대통령을 맡았다. 이 사건 이후 정치권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야권은 차베스가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차베스가 하는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차베스도 야권이 원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게 됐다.

**-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켰지만, 생산력 증가 등에서는 비판이 많다.**

엘너: 차베스 정부는 사회적 목적을 경제적 성과보다 우선시했다. 차베스는 전략산업의 국유화도 이익창출보다는 국가발전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추진했다. 경제적 프로그램과 경제가 중요하지만, 차베스는 사회적 프로그램과 지출에 더 가치를 두는 것 같다. 문제는 민간부문이 베네수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6~2007년 석유 가격상승에 따른 큰 호황에도 민간분야는 생

산만 늘리고 투자는 하지 않았다.

무척 비슷한 상황이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하에서 벌어진 바 있다. 당시도 민간분야가 고의적으로 물자부족 사태를 야기했다. 물자가 부족하면 국민들은 불만이 누적된다. 야당은 과격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실망한다. 가게에 갔는데 선반에 찾는 물건이 없으면 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반정부 세력이 주도하는 이런 인위적 공급부족은 대단히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다.

차베스에게는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 우선 대통령은 반(半)자치 중앙은행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 보호기관(INDEPABIS)은 투기를 하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고 24~48시간 안에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엑시토(Exitto)라는 프랑스-콜롬비아 자본이 소유한 대형 할인점을 지난해 말 국유화했다. 이제 이 기업은 다른 민간 기업과 경쟁한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민간부문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은 차베스가 민간 기업을 몰수하고 폐쇄하는 등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한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전쟁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아마도 대형 국영기업들이 시장에 간여하면 민간 기업들은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투기를 하거나 물건을 빼돌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몰수는 민간부문의 크기를 줄이고, 그러면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의 크기를 넘어서게 될 수도 있다.

### - 베네수엘라 사회는 극단적으로 나뉘져 있다.

엘너: 심각하게 양분된 나라다. 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현장을 가보면 전혀 다른 경우를 수없이 경험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는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중산층은 차베스에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반대한다. 문제 가운데 하나는 중산층과 기업가 계층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이들 사이에 확실한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차베스가 거대 기업을 몰수하면, 야권 성향의 신문은 이것이 마치 중소기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도한다. 하지만 차베스는 중산층과 기업가 계층을 구분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야권은 중산층의 오해와 정보 부족을 악용했다. 예를 들면, 2007년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가 부결되었을 당시, 야권은 대단히 유용한 선전을 펼쳤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일으켜 세운 가게인데, 이제 차베스가 베네수엘라를 쿠바로 바꾸려 해서 가게를 잃게 됐다”는 식이었다. 야권은 중산층의 이익이 침해받게 될 것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중산층은 일부 조치로 손해를 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차베스가 이동학교를 만들어 빈민층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되자, 중산층 학생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하게 됐다. 따라서 중산층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 반정부 세력은 차베스가 빈곤층에 영합하는 정책을 편다고 비난한다.**

엘너: 차베스는 빈곤층에 돈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있다. 교육, 보건 등 각종 ‘미션’(사업)이 그것이다. 바리오



아덴트로(Barrio Adentro) 미션을 통해 약 2만 명의 쿠바 의사가 빈곤지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들 프로그램에 과거와 같은 지원은 없지만 운영되고 있다.

서민층 거주지역에서 식료품값을 지원하는 메르칼(Mercal)은 1주일에 서민층이 한번 정도씩 이용하고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다. 차베스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게 아니다. 야권도 사회보장제도 개선은 인정한다. 기존에 연금제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연금으로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럴 뿐이다. 하지만 차베스는 실제로 시행했고 연금제도 가입 등도 쉽게 해서 10~11년 전보다 가입자가 100% 이상 늘어 약 130만 명에 이른다. 거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연금가입의 권리를 얻은 것이다. 야권은 이런 프로그램이 워낙 성공적이라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은 야권이 집권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의심한다.

- 자유민주주의 모델과 급진민주주의 모델 가운데,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고 논문에서 밝혔는데?

엘너: 무엇이 민주주의냐고 믿느냐에 달렸다. 예를 들면, 급진민주주의 모델은 다수결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국민소환제와 국민투표는 대단히 민주적이다. 미국은 전국 단위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다. 이라크 전쟁을 국민투표에 붙였다면 벌써 끝났을 것이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마지막 4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모델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핵심인데, 베네수엘라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내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부정적이다. 차베스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베스를 대체할 경쟁자가 나타나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정적이다. 다른 결점은 차베스가 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는 사실이다. 의회, 대통령, 사법부는 상호 견제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 전체를 하나로 보다보니 이런 견제와 균형이 없다.

집권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해야 하는데, 차베스가 집권당과 정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차베스는 집권당 총재이고 각 지역별로 부총재가 있다. 부총재 대부분은 정부의 장관이다. 차베스는 장관들에게 당내 경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장관들은 자기편 후보를 밀었다. 정부와 당 사이에 구분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최근의 상황은 고무적이면서도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 집권당에서 2007년 시장과 주지사 후보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 올해 5월에는 오는 9월 총선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는 등 대단히 민주적이다. 반면 야권은 내부경선을 치른 적이 없다. 야권은 올해에 전체 87개 선거구 가운데 15~18선거구에서만 당내 경선을 치르고, 나머지는 지도부에서 지명했다. 차베스파(Chavistas)는 87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내 경선을 치렀다.

– 사회우선전략론자와 실용정책결정 접근론자 사이에 평가도 엇갈린다.

엘너: 같은 좌파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다르다. 실용정책결정면에



서는 비판적인데 ‘모두를 위한 조국’(PPT) 등은 정부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비난한다. 실제로 사회적 프로그램을 증시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한 예로 ‘지역 협의회’(Community Council)제도는 사회적 프로그램이다. 주로 인구집중 지역에 있고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시행하는데 빈곤층이 이런 과정에서 무척 많이 배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공식 분야에 일하는 사람은 정치·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일쑤이므로, 사회적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대단히 유용하다. 반면, 경제적 면에서 그 투자는 민간기업과 계약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비용 대비 효율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자주 직접 호소하는 국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엘너: 맞다. 하지만 다른 면이 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야당이 정책을 제안하고, 국정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학에서 이른바 ‘불충한 반정부세력’(disloyal opposition)은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2005년에 선거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은 차베스가 독재자이자 정치적 억압자라고 비난하고, 차베스가 하는 모든 것은 나쁘다고 반대하고 그 어떤 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차베스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이익과 차베스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다. 야권이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하고 정책을 조정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차베스파는 대안체제로 ‘거리 의회주

의'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 직접(급진)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혼합이 중요하다. 일부 차비스트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차베스 스타일에 반대세력은 분노하지만 저소득층은 좋아한다.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분석가들은 차베스의 스타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 - 석유기업 등의 국유화는 어떻게 평가하나?

엘너: 다양화라는 면에서는 성공했다. 베네수엘라 석유기업은 미국의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했는데, 현재는 중국이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대미 수출은 일정 정도 줄어들었다. 차베스는 각국의 국영기업을 민간 다국적 기업보다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있다. 오리노코 벨트의 석유매장량을 평가할 때는 러시아, 중국, 이란, 벨라루스,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국영 석유기업과 계약을 맺었다. 다양화가 중요한 것은 제3세계 국영 기업은 석유채굴의 기술적 노하우를 민간 다국적 기업처럼 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이전의 좋은 기회다. 특정 국가에 의존을 줄이는 것은 올바른 것이고, 앞으로 독자적으로 생산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유화 뒤 과야나 지역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국유화 기업은 서비스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 국영전화회사가 국유화됐어도 과거처럼 잘 운영된다. 국영기업의 인터넷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민간이 운영할 때만큼 효율적이다. 국영 철강기업이 조금

문제가 있다. 세계 경제위기 직후에 국유화되고 철강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에 영향을 받았다.

### - ‘주권’, ‘자주’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엘너: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갈등을 빚었을 때, 미국은 F16 전투기의 부품을 베네수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베네수엘라는 1992~1993년에 이 전투기 24대를 구입했다. 베네수엘라 공군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력기인데, 미국이 부품 공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다. 미국은 브라질과 스페인에서 관련 부품을 구입하는 것도 막았다. 이것은 주권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보여준다. 이렇게 베네수엘라가 러시아로 가서 무기를 구입하도록 강요해놓고, 러시아제 전투기를 구입하자 비난했다.

다른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기업부문이 2002~2003년 총파업 당시 생산과 판매를 중단해 베네수엘라 정부를 무너뜨리려했다. 이후 정부가 농업분야를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메르칼(Mercal)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 주권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위기상황에서 정부에 선택권을 준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7년 헌법개정 국민투표 이후 각종 제품의 품귀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는 오렌지 주스, 올해는 우유가 부족하다. 정부는 ‘로스 안데스’라는 낙농기업을 몰수해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인위적으로 공급부족을 유도하면 정부가 시장을 차지한다는 의미이다.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줄다리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 - 비판적 언론 등을 폐쇄하는 등 탄압한다는 논란이 있다.

엘너: 전파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허가받은 것이다. RCTV는 2007년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 재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에도 수십 개의 라디오 방송국이 문을 닫았는데, 이들 방송국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 전파는 자동차 면허증과 같아서 정부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파를 다른 방송국에서 샀기 때문에 폐쇄됐다. 정부의 폐쇄결정은 불법이 아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은 매일 언론에 의해 비판받는데 차베스는 언론에 의해 비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부시는 비판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부시는 집권 당시 온갖 실수를 저질렀고, 언론은 훨씬 매섭게 비판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크게 다르다. 대통령 암살까지 공공연히 방송된 적이 있다. 내가 직접 두 번 봤는데, 반차베스로 유명한 레오폴도 카스티요는 역시 반차베스 성향의 글로벌비시온이라는 채널에서 한 시청자가 전화해서 “군인들이 왜 대통령을 썩버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도, “네, 국민들이 대통령에 무척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군요”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대통령을 암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진행자는 어떤 나라에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RCTV 대표 마르셀 그라니에르는 2002년 7월에 쿠데타 핵심 지도자인 메디나 고메스 장군을 은신처에서 인터뷰했다. 생방송이 아니라 녹음된 것인데, 정부 전복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했다.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상황이다. 미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차베스가 RCTV를 방송 다음날

바로 폐쇄해야 하는데 왜 2007년 허가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차베스는 폐쇄 대신에 허가 기간이 끝나자 재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 - 3선 도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비난도 있다.

엘너: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오늘 모든 단위에서 임기가 사라졌다. 대학에서 학장도 재선할 수 있게 됐다. 라틴아메리카나 미국의 관행에 비춰서 덜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뉴욕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임기제한을 없애고 3선에 출마했지만, 누구도 비민주적이라고 하지 않았다. 지난해 숨진 에드워드 케네디는 40년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었다. 미국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까지 100년 넘게 대통령의 임기제한이 없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에 3번 선출됐고, 4번째 임기를 수행하다가 숨졌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임기제한이 있는 것이겠지만, 야권이 차베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대단히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은?

엘너: 단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베스는 군인 출신이다. 베네수엘라 군대는 엘리트 계층이 차지한 칠레나 콜롬비아와 달리, 저소득층 등 비특혜 계층이 입대해서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차베스는 이를 이용해 군대 내에 자신을 지지하는 분파를 만들었다. 총파업을 통해 군부 내에 차

베스 반대세력이 누구인지 드러났고, 이후 친차베스계가 군부를 장악했다.

### - 차베스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비교된다.

엘너: 미국 등이 차베스를 나쁜 좌파, 룰라를 좋은 좌파라고 구분 짓는다. 룰라가 브라질에서 빈곤문제 해결 등에 성과를 거뒀지만 모든 라틴아메리카 지도자가 따라야하는 좋은 좌파의 사례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 룰라를 추켜세우는 것은 룰라를 미화하려는 게 아니라, 차베스를 무시하려는 것이다. 옳지 않다.

### -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과 이후 차베스의 변화를 전망하면?

엘너: 차베스가 2012년에서 승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차베스가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고, 야당은 인기 있는 지도자가 없다. 다만 오는 9월 총선은 큰 시험대이다. 여당이 이기겠지만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야권이 의회를 장악하면, 차베스를 공격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다. 차베스는 2006년 대통령 재선 뒤 전략산업을 몰수하는 등 선거승리 때마다 공격적 정책을 취했다. 2012년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종속을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지, 개혁이나 온건화 변화 정도로는 안 된다. 산업화를 예를 들면 수입대체산업화(ISI)는 성공적이었지만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종



속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속에 맞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0~1970년대의 이런 느리고 비효율적인 변화에 대한 자본주의의 반응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였다. 이것은 기존의 작은 성과마저 되돌려놓았다.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의 재등장은 신자유주의 저항의 반응이었다. 차베스가 집권한 1998년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시몬 볼리바르가 숨진 1830년과 같았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석유지대 추구 의존론을 앞세운 비판이 많지만, 차베스 정부의 개혁은 베네수엘라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게 흥미로운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도과정에서 실수는 불가피하다.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다.□